

물가 14개월만에 3%대로 꺾였지만... 서민 부담 여전

지난달 광주·전남 소비자물가, 전년 동월대비 3.7% 올라 식품·개인서비스 6~8%대 상승 유지...공공요금 '두자릿수'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 2개월 만에 3%대로 내려앉았다. 석유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률을 끌어내리는 양상이다.

하지만 가계경제와 밀접한 외식비와 개인서비스 비용의 물가 상승률을 여전히 7~8%대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체감물가 부담은 여전히 여전한 것으로 우려된다.

◇광주·전남 4월 물가 3.7%...작년 2월 이후 첫 3%대 복귀=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4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지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평균 3.7% 올랐다.

이는 전월 광주·전남 평균 상승률(4.4%)보다 0.7%포인트 낮은 것으로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둔화한 것은 작년 2월 이후 처음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는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11.07(2020년=100)로, 전년 대비 3.9% 올라 전월(4.7%) 상승률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전남은 111.40으로, 전년 대비 3.5% 올라 전월

(4.1%)보다 0.6%포인트 떨어졌다.

석유류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전체 물가 상승세 둔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지역 휘발유 가격은 전년 대비 17.8% 하락했고, 경유도 20.1% 떨어졌으며 자동차용 LPG도 13.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남의 휘발유와 경유도 각각 17.1%, 19.4% 하락했고, 자동차용 LPG도 13.8%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개인서비스 6.4%↑·식품 7.1%↑...서민물가 상승 여전=전남적인 지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폭은 하락했으나, 식품과 공공요금, 개인서비스 요금 등 서민들의 체감물가 상승률은 6~8%대 상승률을 유지했다.

광주·전남의 개인서비스는 전년 동월 대비 6.4% 올랐고, 식품은 7.1%, 음식·숙박은 7.55%는 상승

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의 생활물가지수 중 식품은 전년 대비 7.4% 올라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하는데 그쳤다.

농축산물 중에서는 돼지고기(10.1%), 고등어(15.7%), 토마토(34.2%), 양파(54.2%) 등 주요 식재료의 상승 폭이 컸다.

빵(12.5%)과 커피(15.2%) 등을 비롯해 유아동복(9.6%), 세탁료(14.4%) 등도 크게 올랐다.

반장짜기 백반(15.3%)과 치킨(8.9%) 등 음식·숙박 물가도 전년 대비 8.3%나 올랐다.

지난달 예정됐던 전기요금 인상 등이 미뤄졌음에도, 도시가스(32.0%)와 전기료(22.5%), 지역난방비(31.4%) 등 공공요금의 상승률도 컸다.

전남지역 역시 비슷하다. 전남의 식품 생활물가

는 전년엔 견줘 6.4% 올라 전월보다 0.5%포인트 하락하는 것에 그쳤다.

주요 식재료로 꼽히는 고등어 20.4%, 오징어 15.6%, 갈치 8.8%, 새우 10.1%, 양파 50.5%, 파프리카 27.7%, 호박 26.9%, 당근 57.2% 등 농축수산물도 크게 상승했다.

햄버거(17.1%), 해장국(12.4%), 피자(12.2%) 등 음식·숙박 물가는 전년 대비 6.8% 상승했고, 오락·문화 물가도 4.5% 올랐다.

전남 역시 공공요금 상승률이 높았는데, 전기료와 도시가스가 각각 22.5%, 30.9% 상승했고, 보험서비스료(17.6%)를 비롯한 개인서비스도 전년 대비 6.0% 상승했다. 이밖에 빵(11.5%)과 기능성화장품(13.0%), 유아동복(9.6%) 등 일부 공업제품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김민석 기자 mskim@

4년만의 문화 나들이

광주은행 노조, 가족 연극 관람

광주은행 노동조합은 최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임직원 가족의 화합과 활력 도모를 위해 상반기 문화행사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광주은행 노동조합 문화행사가 4년 만에 재개한 것으로, 광주은행 임직원과 가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광주시 광산구 롯데마트 수안점 문화센터 극단 '레미'에서 어린이 연극 '백설공주를 도와줘'를 관람했다.

박만 광주은행 노조위원장은 "앞으로도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광주은행 임직원과 가족의 화합을 도모할 것"이라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국세청, 31일까지

국세청은 이달 31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330만원(맞벌이 기준)이,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8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10% 상향 조정된 금액이다.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근로 장려금 270만4천 가구, 자녀 장려금 39만6000가구 등 310만 가구다.

특히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올해 4월 산발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14만 가구에 대해선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해 신청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지갑서 사라진 10만원권 수표... 지난해 20% 넘게 급감

하루 이용 건수 11만4000건·이용금액 110억 불과 2009년 5만원권 등장 후 급감...모바일 결제도 영향

10만원권 수표 이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만원권 지폐 사용 확산과 모바일 결제가 수표 이용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일 한국은행 및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0만원권 자기앞수표 이용건수는 일평균 11만4천건으로 전년(14만5000건) 대비 21.6% 줄었다.

10만원권 일평균 이용금액 역시 같은 기간 140억원에서 110억원으로 21.6% 감소했다.

10만원권을 포함한 정액 자기앞수표 일평균 이용건수와 금액 역시 2021년 22만3000건, 920억원에서 지난해 18만6000건, 830억원으로 16.7%와 9.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비정액권을 포함한 전체 자기앞수표 일평균 이용건수는 2021년 25만9000건에서 지난해 22만4000건으로 13.5% 줄었지만 이용금액은 1조2060억원에서 1조2440억원으로 3.1% 늘어났다.

비정액권은 고액거래를 하는 기업이 주로 활용하는 데다 이전 지급수단을 계속 이용하는 상거래 관습 등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감소 속도가 더딘 것으로 풀이된다.

10만원권 수표 사용은 지난 2009년 6월 5만원권 지폐 등장 이후 빠르게 줄고 있다.

5만원권은 배서 등의 불편이 없고 자금추적, 부도 등 위험이 없다는 점 등에서 자기앞수표 수요를

빠르게 흡수했다.

실제 10만원권 수표 일평균 이용건수는 지난 2008년에만 해도 374만2000건에 달했다.

그러나 5만원권이 나온 2009년 307만3000건으로 17.8% 줄어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2017년 43만1000건, 2018년 31만3000건, 2019년 22만5000건, 2020년 17만건, 2021년 14만5000건, 2022년 11만4000건까지 줄었다.

14년 만에 97% 급감한 셈이다.

일평균 이용금액 역시 2010년 2480억원과 비교하면 지난해에는 110억원으로 12년 만에 95% 이상 감소했다.

5만원권 사용 확대에 이어 전자방식 지급수단이 발달하면서 10만원권을 포함한 자기앞수표 이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금호타이어 '동행축제'와 함께 달린다

28일까지 할인 프로모션

금호타이어는 오는 28일까지 '2023 대한민국 동행축제' 동참해 전 판매 채널에서 주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타이어프로를 비롯해 금호타이어 제품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대리점(일부 매장 제외)에서는 금호타이어 및 타이어프로 홈페이지를 통해 교체지원금 쿠폰을 제공한다.

또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제품인 크루젠 HP71, 크루젠 HP51 2개 이상 구매시 배달의민

족 상품권을 오는 20일까지 지급한다.

타이어프로 온라인몰에서는 주요 프로모션 대상 제품은 2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교체대행 및 방문장착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며 코어플러스 세차 3000원 이용 쿠폰을 지급한다.

렌탈서비스인 '또로로로 서비스 렌탈'을 신규 가입할 경우 등록비 무료와 렌탈료 3회(22~24회차) 면제 혜택도 제공한다.

안병석 한국영업담당 상무는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내부 고객인 대리점주들도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현대차, 어린이 통학버스 무상점검 캠페인

8일까지 서비스 접수

현대자동차가 어린이들의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특별한 서비스를 마련했다.

현대차는 마스크 착용 의무 해지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등하원길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6월 9일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무상점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자시스템, 엔진룸, 타이어 공기압 등 차량 전반을 점검해주는 '차량 진단점검 서비스'와 와이퍼, 냉각수 및 각종 오일류 등 일반 소모품을 교체해주는 '소모품 교환·보충 서비

스', 실내 환풍 서비스 등을 무상 제공한다.

이번 무상점검 캠페인은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통학차량으로 현대차 스타렉스, 스타리아, 카운티-에어로타운 등 중·대형버스를 사용 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고객은 오는 8일까지 캠페인 신청 사이트(https://h-event.hyundai.com/event/kids_care_service)를 통해 예약을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비스 제공 기간 각 지역 사·도교육청 또는 현대차 하이테크센터 등 별도 점검 장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본부세관, 중소기업 FTA 무료 교육

광주본부세관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능력 제고와 FT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YES FTA 전문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집합과정·수요자맞춤형과정·온라인과정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된다. YES FTA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ftaedu.or.kr/yesfta/>)를 통해 수강신청 할 수 있다.

집합과정은 기업의 FTA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11월까지 매월 FTA 기초부터 심화까지 단계별로 진행하며, 5월 집합과정은 'FTA 활용'을 주제로 17일 광주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다.

수요자 맞춤형과정은 희망기업의 신청을 받아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교육을 진행하는 1대1 수출컨설팅과 수출기업과, 그 협력업체들의 원산지·공급망 관리를 위한 합동교육 등을 제공한다.

온라인과정은 인증수출자 신청, C/O 작성, HS

통치 이해 등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6개 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

세부일정은 매일 초 광주본부세관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gwangju/>)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전화(062-975-8194)로 문의하면 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24.39(+22.86)
↑ 코스닥	855.61(+12.78)
↑ 금리(국고채 3년)	3.335(+0.042)
↑ 환율(USD)	1342.10(+4.40)



롯데백화점, 플라워샵 팝업 행사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식품매장에 마련된 플라워샵 팝업매장에서 고객이 꽃다발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한 달간 플라워샵 팝업행사를 열고, 꽃다발과 꽃바구니 등 선물 상품과 함께 카네이션과 장미 등 관상용 제품을 선보인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